

<눈물(김현승) - 수능특강 31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리(琉璃)에 ㉠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벌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琉璃)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1」 -

(나)
더러는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 김현승, 「눈물」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단정적 어조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경어체를 사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비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모순 형용 어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2~3번은 <보기>를 읽고 답하시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자식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② ㉠은 죽은 자식을, ㉡은 살아 있는 자식을 상징한다.
 - ③ ㉠은 세속적 삶의 가치를, ㉡은 본질적 삶의 가치를 상징한다.
 - ④ ㉠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은 삶에 대한 애착심을 드러낸다.
 - ⑤ ㉠은 자식과의 힘든 삶을, ㉡은 자식과의 즐거운 삶을 나타낸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다. (가)의 화자는 죽은 자식에게 닿을 수 없는 상황을 형상화함으로써 대상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자식을 잃고 흘리는 눈물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나)의 화자는 자식을 잃고 슬픔과 좌절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절대자를 통해 절대적으로 순수한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 ① (가)는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를 통해 죽은 자식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를 통해 죽은 자식에게 닿고자 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나)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를 통해 자식이 사후에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는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나의 전체'를 통해 자식을 잃고 흘리는 '눈물'이 절대적인 순수의 가치를 가진 대상을 나타내고 있군.
- ⑤ (나)는 '열매'와 '나의 웃음'이라는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자식을 잃은 슬픔을 승화하고 있군.

눈물(김현승)

1.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 특징을 이해한다.

④ (가)와 (나)에 모두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자식과의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가)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어른거린다', '파닥거린다', '박힌다'의 단정적인 어조를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어조가 화자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나)에서 설 의적 어법을 찾을 수 없다. ③ 경어체는 '드리라 하올 제', '보시고', '주시다' 등 (나)에서 만 나타나고 있다. ⑤ 모순 형용 어법은 (나)가 아니라 (가)의 '외로운 황홀한 심사'에 나타나고 있다.

2. [출제 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은 유리창에 생긴 화자의 입김으로 화자가 죽은 자식으로 느끼는 것이고, ㉡은 자식의 죽기 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꽃'이 시들었다는 것은 자식의 죽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은 죽은 자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은 아니다. ③ ㉠은 세속적 가치와 관계가 없고, ㉡은 '열매'와 대비할 때 세속적 가치를 상징한다. ④ ㉠은 죽음의 이미지를, ㉡은 삶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두려움'이나 '애착'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은 자식과 힘든 삶과 관계가 없고, ㉡은 자식과의 즐거운 삶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의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 '옥토'는 화자가 새로운 삶의 가치를 깨달은 절대적인 공간을 의미할 뿐이다.

[오답 풀이] ① '산(山) 새'가 날아갔다는 것은 죽은 자식의 모습이 눈에서 사라졌다는 것으로 화자가 자식의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을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② 화자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는 유리창을 닦는 구체적 행위를 형상화함으로써 자식에게 달고자 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전체'는 '눈물'로 화자는 '눈물'이 '흠도 티도' 없고 '금'도 가지 않은 절대 순수를 가치를 지닌 대상을 발견하고 있다. ⑤ (나)의 '꽃'과 '웃음'은 일시적이고 현상적이며 세속적인 가치를 상징하고, '열매'와 '눈물'은 영구적이고 본질적이며 절대적 가치를 상징한다. 이러한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는 '열매'와 '눈물'에서 찾은 깨달음으로 자식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배꼽을 위한 연가 5(김승희), 자화상(윤동주) - 수능특강 35p, 76p 관련〉

-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5」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나)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A]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둠터라도
결코 인당수에는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B]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C]

그 대신 점자책을 사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D]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다는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E]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앞 뒤의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의미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대조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화자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어머니’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어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B] : 선어말 어미 ‘-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C] : 비슷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해서 주체적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D] : 설득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 자신의 회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E] :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어는 독립된 낱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하나의 부분이다. 따라서 시어의 의미는 시의 전체적인 구조와 문맥 속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 ① (가)는 ‘우물’ 앞에 ‘외딴’이라는 수식어구를 결합하여 화자의 성찰 상황을 부각하고 있군.
- ② (가)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자신을 ‘한 사나이’로 표현하여 자기 성찰을 시도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나)는 ‘나비’가 되기 위해 ‘누에고치’를 버리는 ‘애벌레’를 제시하여 대상이 다른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는 ‘미워져 돌아갑니다’와 ‘그리워집니다’를 통해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나)는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를 통해 자기 선택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군.
- ⑤ (가)는 ‘우물 속’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나)는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를 통해 화자 자신의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군.

배움을 위한 연가 5(김승희) / 자화상(윤동주)

01. [출제 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성을 이해한다.

② 마지막 연은 2연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수미상관식 구성은 구조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데, 뒤의 연은 추억처럼 사나이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내적 갈등의 해소를 의미하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의문형 진술이 사용되어 있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니다'와 같은 산문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성찰 행위, 자신에 대한 연민 등이 부각되고 있다. ③ '괴이한 바람'은 촉각의 시각화를 이용한 공감각적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화자의 저항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우물 속' 세계는 화자가 서 있는 현실과 대비되는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부정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⑤ 우물 안 공간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괴이한 바람'같이 시적 허용을 활용한 표현이 확인되지만, 그것이 특별히 화자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의도로 쓰이고 있지는 않다.

02. [출제 의도] 서술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파악한다.

④ [D]에서 설득적 어조를 사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아울러 부모에게 자식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정할 뿐 화자의 희생과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인당수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화자인 '저'가 '어머니'를 청자로 설정하여 '시를 짓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② [B]에서는 '않겠습니다.', '보겠습니다.'처럼 선언어미 '-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C]에서는 '~가 ~을 ~하는 것이 죄입니까?(죄일까요?)'의 구조의 문장을 반복해서 주제적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E]에서는 '외국어와 같은 것'처럼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⑤ (가)의 화자는 '우물 속' 세계에 미운 사나이, 불쌍한 사나이 등으로 자기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는 있다. 그러나, (나) 화자는 '우리'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절망감이라기보다는 의지의 표현에 가깝다.

[오답 풀이] ② (가)의 화자는 우물 속의 남자를 '한 사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려 시도하고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벌레'는 '나비'로서 날기 위해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함으로써, 여성으로서 주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을 전한다. ④ (가)의 화자는 우물 속의 '한 사나이'를 바라보면서 그가 '미워'지기도 '그리워'지기도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드러낸다. 한편, (나)의 화자는 '죄일까요?'라며 설의법을 활용함으로써, 생각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님의 노래(김소월) - 수능특강 74p 관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긴 날을 문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 밭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 김소월, 「님의 노래」 -

(나)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 열주처럼 운나게 굴리던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저 들에선 벌거벗은 나무들이
추위 울어도
서로서로 기대어 숲이 되어도
나는 무관해서

㉣ 문 한 번 열지 않고
반추동물처럼 죽음만 꺼내 씹었다.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 겨울.

- 문정희, 「겨울 일기」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 율격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현재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직유를 사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맑은', '고운', '흔들리는'과 연결됨으로써 입이 부재한 상태에서 입에 대한 그리움을 내포하고 있다.
- ② ㉡은 '밭들도록'과 연결됨으로써 입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운나게 굴리던 독백'과 연결됨으로써 '나'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후에도 그 사람을 잊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은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과 연결됨으로써 '나'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황과 연결됨으로써 '나'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별의 정한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로 문학 작품에서 수없이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별의 정한에 대해 독자가 느끼는 감정은 입의 부재 상황에 대처하는 화자의 모습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의 경우, 화자는 입과 이별한 후에도 입을 한순간도 잊지 못하면서도 이픔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입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한없이 행복해지는 화자의 모습은 입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나)의 경우, 화자는 입과 헤어진 아픔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드러내는 고통의 크기만큼 입에 대한 사랑이 컸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① (가)는 '님의 노래'를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입의 부재로 인해 점차 입이 잊힐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군.
- ② (가)는 '님의 고운 노래'를 '긴 날을 문밖에서 서서 듣는다는 것을 통해, 이별의 상황이 힘든 일이라는 하지만 화자가 입을 잊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는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입의 '노랫가락'에 '깊이' 잠든다는 것을 통해, 입을 생각하며 행복해지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의 깊이를 짐작하게 하는군.
- ④ (나)는 '반추동물처럼 죽음만 꺼내 씹으며 '누워서 편히 지냈다'를 통해, 죽음과도 같은 이별의 상황을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별의 아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⑤ (나)는 '벌거벗은 나무들이', '기대어 숲이 되어도', '나와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이별로 인한 고통의 크기를 나타냄으로써 입에 대한 사랑이 컸음을 드러내고 있군.

님의 노래(김소월)

1. [출제 의도] 작품 간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파악한다.

④ (가)는 '님의 노래는', '귀에 들려요' 등의 어휘를 반복하고 있고,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에는 전통적 율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나)는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③ (나)는 '반추동물처럼'의 비유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가)는 직유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대상과의 대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2.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① '밤'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 낮과 이어지는 시간이다. 즉 화자가 낮에 서부터 밤에 될 때까지 입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입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노래'는 '노래'를 수식하고 있는 '맑은', '고운', '흔들리는' 등을 통해 입이 부재된 상태에서 입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염주'는 '독백'을 비유하는 소재로 '윤나개 굴리던'과 연결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화자는 입과 이별한 후 '문' 한번 열지 않고 방에서 누워서 죽은 사람처럼 지내고 있다. 이때 문이 닫혔다는 것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임을 드러낸다. ⑤ '겨울'은 화자가 입과 헤어지고 나서 지내는 시간을 상징하는 소재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의미한다.

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① (가)에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있고 말아요'는 입이 없으니 님의 노래도 없어서 입이 더 그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입의 부재로 인해 점차 입이 잊혀질 수 있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화자는 입의 고운 노래를 문밖에 선 편하지 않은 자세로 받까지 듣고 있다. 이것은 입의 상황이 화자에게 힘든 일이라는 하지만 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③ 외로운 마음으로 자리에 들면서 입의 노래를 들으면 편안하게 잠드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화자를 생각하기만 해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④ 화자는 입과 헤어진 후 죽음과 같은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편히' 지낸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별의 아픔을 부각하고 있다. ⑤ 외로운 나무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숲이 되는 일, 즉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통해 화자의 고통과 절망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것은 화자가 입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